

##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그 세속법적 함의\*

### Calvin's Natural Law Theory and Its Implications for Human Law

김대인(Dae-in Kim)\*\*

#### ABSTRACT

Order of gathering restriction, which was imposed upon churches in defense of Covid-19 pandemic, raises debate on the role and limitation of human law. This paper deals with John Calvin's natural law theory which deals with this issue.

Calvin, unlike Aquinas, finds the source of natural law from conscience, and analyzes that Decalogue reflects natural law. He considers the 'equity' as the core of natural law, and equity is related with 'love for God and neighbor' which is the essence of Decalogue. He establishes natural law theory based on the emphasis on 'sinful nature' of human. In this context, Calvin thinks neither freedom nor civil government is absolute. In this sense, Calvin can be evaluated as asserting 'relative natural law theory'.

Calvin's natural law theory shows many implications to human law today. First, his theory shows that 'love for neighbor' lays behind the principle of equity, which is widely accepted in human law nowadays. Second, Calvin's emphasis on 'sinful nature' of human clarifies the limitation of seeing human law too ideally. Third, his theory shows the way that natural law theory and positive law theory can be reconciled.

From the perspective of Calvin's natural law theory, in executing order of gathering restriction according to 'Act on Prevention of Epidemic Disease', sinful nature of government & church itself should be considered in balance, and this regime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direction of abiding the 'love for neighbor' command.

**Key Words:** Calvin, Aquinas, divine law, natural Law, human law, equity, order of gathering restriction

---

\* 2021년 5월 11일 접수, 6월 12일 최종수정, 6월 18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1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2021년 5월 22일) 사회과학분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20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이화여자대학교(Ewha Womans University)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daeinkim@ewha.ac.kr

## I. 서론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여 교회에게 내려졌던 집합금지명령은 여러 가지 논쟁을 낳았다. 예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부 교회의 입장이 나타나기도 하였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의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세속법(인정법)의 기능과 한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역사에서 세속법의 기능과 한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견해 중의 하나로 중세의 아퀴나스(Aquinas)에 의해서 집대성되고 오늘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연법’(natural law) 사상을 들 수 있다.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은 인간의 실천이성을 긍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연법을 근거지운다. 이러한 자연법은 인간이 신적인 질서(영구법)에 참여하여 인식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자연법으로부터 인정법이 도출된다고 이해한다.(Summa I-II, Q.90-108; 이진남, 2010; 강상진, 2014) 이러한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은 피니스(John Finnis) 등을 통해 계승되고 있다.(Hopkins, 2005; 오민용, 2018) 법철학의 역사는 이러한 자연법사상과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 간의 대결과 극복의 역사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은정, 2017)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연법에 대한 논의를 보면 한 가지 공백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바로 종교개혁가인 칼뱅(Calvin)이 자연법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칼뱅의 신학사상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지만, 칼뱅의 ‘자연법사상’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sup>1</sup> 자연법사상에 대해서 국내의 법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칼뱅’의 자연법사상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sup>2</sup> 이는 칼뱅의 자연법사상이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DeBoer, 2008: 652), 이러한 이유로 신학과 법학 분야 모두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sup>3</sup>

1) 신학분야에서는 이은선(1993), 김철영(1999), 원성현(2002), 권호덕(2003), 김재성(2004), 문병호(2005), 김희권(2008), 송용원(2017), 우병훈(2019), 양명수(2020) 등을 관련된 연구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선행연구들 및 여기에서 인용된 광범위한 외국문헌들은 이번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나침반을 제공해주었다. 이 글에서는 법학적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신학적인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2) 법학분야에서는 지승원(1990), 진웅희(1993), 홍기원(2007), 김두식(2007), 한철(2008), 김철(2009), 김대인(2009), 김정우(2010), 신치재(2011), 김상용(2012), 이국운(2016), 송시섭(2019) 등에서 개신교 법사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들 선행연구들은 이번 연구의 소중한 출발점이 되었다. 다만 이들 연구들에서는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이를 이 글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칼뱅의 법사상은 그의 대표작인 「기독교강요」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인간의 본성(2권 2장), 율법의 목적(2권 7장), 십계명 해석(2권 8장), 인간법의 제정권(4권 10장), 시민정부(4권 20장) 등에서 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sup>4</sup> 또한 칼뱅은 제네바에서 지속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성경의 각 권에 대한 주석서도 광범위하게 발행하였는데, 이 중에서 마태복음, 로마서 등의 주석에서 그의 법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첫째, 칼뱅의 자연법사상의 핵심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형평’ 등 칼뱅의 자연법사상의 핵심개념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둘째, 칼뱅의 인간론과 자연법사상 사이의 관계이다. 칼뱅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칼뱅의 인간론과 양심을 원천으로 하는 자연법사상 사이에 모순충돌되는 면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칼뱅의 자연법사상의 독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자연법사상을 완성한 아퀴나스의 사상과 칼뱅의 사상간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한 다음(II), 칼뱅의 인간론과 자연법사상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III),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을 비교한다(IV). 이어서 칼뱅의 자연법사상이 오늘날 세속법질서에 주는 함의를 검토하고(V), 마지막으로 일정한 결론을 제시하도록 한다(VI).

## II. 칼뱅의 자연법사상의 핵심개념

### 1. 개관

칼뱅의 자연법사상에 대한 연구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그의 전체사상의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주변적이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며, 그의 전체 신학사상과 모순되기까지 하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칼뱅의

3)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주요 선행연구들을 연도순으로 일괄해보더라도 칼뱅의 법사상에 대한 연구(Bohatec 1934), 칼뱅의 법개념에 대한 연구(Hesselink 1992), 칼뱅의 형평개념에 대한 연구(Haas 1997), 개혁주의윤리에서의 자연법연구(Grabill 2006), 칼뱅의 권리사상에 대한 연구(Witte 2007), 두 왕국이론과 자연법사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VanDrunen 2010) 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4) 시민정부에 관한 장은 기독교강요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민불복종은 시민정부에 관한 장 안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우병훈 교수는 이처럼 칼뱅이 시민정부에 관한 장을 맨 마지막에 위치시킨 취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즉, 칼뱅은 가톨릭군주의 시선을 피하면서도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 즉,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싶었다는 것이다.(우병훈 2019: 189)

자연법사상과 중세의 자연법사상간의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sup>5</sup> 다른 하나는 자연법사상이 칼뱅의 법사상 및 정치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중세의 자연법사상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견해이다.<sup>6</sup>(Klempa 1990: 1-5; VanDrunen 2004: 503-504; Grabill 2004: 108-117)

이러한 대립적 견해의 핵심에는 칼뱅이 강조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다른 한편으로 칼뱅이 말하고 있는 ‘양심에 기반한 자연법’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쟁점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강요」를 비롯한 칼뱅의 저작들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입장만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견해의 중간 입장을 취하는 클렘파의 견해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sup>

클렘파를 비롯하여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분석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칼뱅의 자연법사상이 가장 축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강요」 4권 20장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다.(Klempa, 1990: 5)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법은 자연법의 증거에 불과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새긴 양심의 증거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형평의 개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덕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형평만이 모든 법의 목표와 표준과 한계가 되어야 한다. 그 표준에 따라 구성되며 그 목표를 향하며 그 한계를 지키는 법이라면, 그런 법이 유대인들의 법이나 우리의 법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배척할 이유가 없다.”(Institutes 4.20.16)

칼뱅은 법의 단일성과 다양성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위와 같은 서술을 하고 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을 채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모욕하는 주장에 대해서 칼뱅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칼뱅은 신정주의를 배격하며, 형평이라는 자연법의 핵심개념이 준수되는 전제하에서 각 나라와 민족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뱅의 위 서술을 보면 하나님의 법(신법), 도덕법, 자연법, 형평이라는 개념들이 긴밀한 관계 가운데 서술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각국의 법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면서 세속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글에는 이들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5)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바르트(Karl Barth)이다. 그는 브루너(Emile Brunner)와 펼친 자연신학 논쟁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했다.(브루너·바르트: 2021) 그 외에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로 랑(August Lang), 토렌스(James Torrance), 헤셀링크(John Hesselink) 등을 들 수 있다.

6) 브루너(Emile Brunner)를 비롯하여 맥닐(John T. McNeil), 멀러(Richard Muller), 슈라이너(Susan Schreiner) 등을 들 수 있다.

7) 클렘파(William Klempa)가 이에 속하여 반드루넨(David VanDrunen)도 이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

## 2. 하나님의 법(신법)

칼뱅의 신학에서 법은 핵심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칼뱅은 법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칼뱅은 타락이전의 상태에서도 법이 주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금지하는 법을 정한 것<sup>8</sup>은 인간이 하나님께 속해있다는 점을 명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바울이 법이 의로운 자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디모데전서 1:9), 칼뱅은 이것이 창세기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바울이 타락이전부터 하나님께 인간에게 법을 주셨다는 점을 부인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Comm. Genesis 2:16-17)

칼뱅은 하나님의 단일하고, 자비로운 의지, 즉 사랑이 계시된 결과로 법이 나왔다고 보았기 때문에 법과 복음간에 본질적인 통일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법과 복음 모두 하나님의 단일한 의지와 말씀으로부터 나왔다고 보았다.(Institutes 1.17.2) 이 점과 연결하여 헤셀링크는 칼뱅과 루터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칼뱅은 법을 하나님의 ‘드러난 의지’(revealed will)가 계시된 것으로 보면서 법과 복음의 통일성을 강조한 반면, 루터는 법을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hidden will)가 계시된 것으로 보면서 법과 복음의 구분을 강조했다는 것이다.(Hesselink, 1992: 36)

도예베르트는 이러한 칼뱅의 법이념(law-idea)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형식적으로(formally) 법은 하나님과 피조물간의 보편적인 경계선을 부여하며, 둘째, 실질적으로(materially) 법의 내용은 섭리적·우주적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고, 셋째, 실질적으로 법은 창조주와 피조물간의 지속적인 의존성을 근거지운다는 것이다.(Dooyeweerd, 2013: 17)

## 3. 도덕법

칼뱅은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인식하기 힘들게 됨에 따라 모세를 통해 도덕법을 주셨고 이는 십계명으로 실정화되었다고 보았다. 칼뱅은 아퀴나스와 마찬가지로 모세율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Klempa 1990: 6)

“모세에 발표된 하나님의 율법 전체는 보통 도덕에 관한 율법, 의식에 관한 율법, 재판에 관한 율법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나씩 고찰해서 거기 있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고 어떤 것이 해당되지 않는가를 깨달아야 한다.”(Institutes 4.20.14)

8)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6-17)”

이처럼 칼뱅은 하나님의 법은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된다고 보았다. 자연법,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실정법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칼뱅은 이러한 형식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있는 의지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칼뱅은 이 중에도 특히 도덕법을 중시했는데 이는 영구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Hesselink, 1992: 18-19) 칼뱅은 도덕적인 율법은 다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우선 도덕에 관한 율법을 본다면 거기에는 두 부분이 있다. 한 부분은 순수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 한 부분은 진실한 애정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한다. 따라서 도덕에 관한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을 정돈하고자 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해 주신 의의 표준 곧 참되고 영원한 표준이다.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Institutes 4.20.14)

다시 말해 칼뱅은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덕법을 주셨고 이는 십계명에 반영되어 있으며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임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칼뱅은 이러한 도덕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의를 밝히는 동시에, 각 사람의 불의를 경고하며 정죄하는 기능이다. 둘째, 벌을 받으리라는 공포심을 일으켜 일부 사람들을 억제하는 기능이다. 셋째, 신자들을 훈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칼뱅은 이 중에서 세 번째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Institutes 4.20.6 - 4.20.12)

이 중에서 두 번째의 기능(정치적 기능)은 다른 기능들과 달리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인간을 성화시키거나 정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집행을 통해 세속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칼뱅은 하나님의 왕국은 진정한 의를 회복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세상의 왕국은 외형적인 부정의를 억제하는 데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Institutes 2.7.10; Tuininga, 2016: 284) 이러한 세 번째 기능은 세속법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법의 세 가지 기능(용도)은 각각 신학적 기능, 정치적 기능, 교육적 기능으로 불리기도 한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학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을 주로 강조하였는데, 칼뱅은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루터와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법의 세 가지 기능은 근대형법에서 형벌의 세 가지 기능이론으로 연결된다.(권호덕, 2003)

#### 4. 자연법

칼뱅이 「기독교강요」에서 자연법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의 주석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개념들을 언급하고 있다. ‘자연의 법’(lex naturae), ‘자연법’(lex naturalis), ‘자연에 의해 모두에게 심겨진 법’(legem naturaliter omnibus insitam), ‘자연의 소리’(vox naturae), ‘형평의 규칙’(regula aequitatis) 등이 그것이다.(Hesselink 1992: 52) 칼뱅은 하나님께서 자연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자연법은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자연법은 공정과 불공정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양심의 깨달음이며, 사람이 무지를 구실로 삼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 자신의 증언에 의해 유죄를 증명한다면, 이것은 자연법에 대한 정의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Institutes 2.2.22)

다시 말해 칼뱅은 자연법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도덕적인 기준,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그것이다. 그리고 무지를 구실로 삼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으로부터 칼뱅이 로마서 2:14-15<sup>9</sup>를 토대로 자연법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Haas, 1997: 67) 칼뱅은 이러한 자연법이 십계명에 담겨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칼뱅에 있어서 자연법과 도덕법은 궁극적으로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Klempa 1990: 6)

#### 5. 세속법

칼뱅이 ‘세속법’ 또는 ‘인정법’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지만, 세속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칼뱅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잘 나타난다.

“국가 조직에서 집권자 다음가는 것은 법률이다. 법률은 국가의 가장 튼튼한 힘줄이며, 키케로는 플라톤을 따라 법률을 나라의 영혼이라고 부른다. 법률이 없으면 집권자의 지위가 없는 것은 마치 집권자가 없으면 법률에 힘이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법은 무언의 집권자요 집권자는 살아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옳은 일이다.”(Institutes 4.20.14)

이처럼 칼뱅은 세속정부의 집권자(magistrate)와의 관계에서 세속법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권자들의 강제력 행사는 경건과 양립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살인을 금지

9)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14-15)”

하고 있고, 살인자는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인 집권자들에게 칼을 주어 모든 살인자를 치게 하신다는 것이다.(Institutes 4.20.10)

칼뱅은 이처럼 세속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속법을 집행하는 집권자들을 부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집권자들은 하나님의 대리로서 그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집권자들은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본다. 칼뱅은 이러한 집권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집권자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Institutes 4.20.5, 4.20.6, 4.20.31, 4.20.32)

그러면 칼뱅에 있어서 세속법은 도덕법(자연법)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칼뱅에 의하면 세속법은 도덕법의 두 번째 기능(정치적 기능)과 연결된다. 즉, 도덕법은 벌을 받으리라는 공포심을 일으켜 일부 사람들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데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속법이 필요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만사가 혼돈하지 않고 사회가 평온하도록 강요된 의를 허용하는 방법을 마련하셨다는 것이다.(Institutes 2.7.10)

## 6. 형평

칼뱅은 자연법의 핵심으로 ‘형평’의 개념을 들고 있다. 이는 칼뱅이 ‘형평’과 ‘자연’이라는 개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자연적 형평: *aequitas naturalis*)가 많은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칼뱅은 형평은 자연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다. 각국의 헌법에서 형평의 원리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McNeill, 1946: 181; Haas, 1997: 68) 칼뱅은 다음과 같이 형평은 모든 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원리로 보았다.

“형평은 당연한 것이므로 모든 법에서 동일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법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이 동일한 목적이 모든 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은 부분적으로 환경에 지배된다. 따라서 모든 헌법이 형평이라는 목표를 동등하게 추구한다면 그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Institutes 4.20.16)

하스(Haas)는 형평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분석해보면 네 가지의 이해가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1) 실정법이 그 일반성으로 인해 흠결이 있을 때 이를 교정하는 것(아리스토텔레스의 *epieikeia*), 2) 자연법(키케로, 세네카, 로마법), 3) 법의 해석원리로서의 정의(로마법), 4) 자비와 관용에 기반한 온화한 법해석(유스티니아누스의 시민법대전) 등이 그것이다. 하스는 칼뱅이 이 중에서 성경의 법을 주해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2), 3), 4)의 의미에서 형평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Haas, 1997: 123) 이러한 점에서 칼뱅이 로마법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잘 나타난다.



칼뱅은 형평개념의 성경적인 근거를 마태복음 7:12<sup>10</sup>에서 찾고 있다. 마태복음 7:12는 소위 황금률(golden rule)을 담고 있다. 칼뱅은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형평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칼뱅에 의하면 이웃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형평이며, 이는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핵심인 ‘이웃사랑’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칼뱅은 황금률은 우리 자신과 이웃을 구별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았다. 세상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형평의 원리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다.(Comm. Matthew 7:12) 이처럼 칼뱅은 자연법의 핵심원리를 형평에서 찾았고 이는 사랑의 계명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았다.(Haas, 1997: 50; VanDrunen, 2004: 512)

이상에서 설명한 칼뱅의 자연법사상의 핵심개념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칼뱅 자연법사상의 핵심개념들

핵심개념	내용
신법	하나님의 단일하고, 자비로운 의지, 즉 사랑이 계시된 결과로 법이 나왔음.
도덕법	인간의 타락으로 신법을 온전히 인식하기 힘들게 됨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도덕법(십계명)을 주심. 도덕법은 신학적 기능, 정치적 기능, 교육적 기능을 함.
자연법	인간이 무지를 구실로 삼지 못하도록 자연법을 주심. 자연법은 십계명에 담겨있음. 자연법과 도덕법은 일치됨.
세속법 (인정법)	인간의 죄성을 억제하고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속법이 필요함. 도덕법의 정치적 기능과 세속법이 연결됨.
형평	형평은 자연법의 핵심임. 형평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핵심인 이웃사랑을 반영함.

### III. 칼뱅의 인간론과 자연법사상

#### 1. 인간의 죄성

칼뱅의 인간론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그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즉 죄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칼뱅의 진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묘사된 바와 같은 것은 타락한 풍습이라는 결함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자체는 멸망하고 버림받는 자이므로 주의 자

10)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12)”

비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논법은(롬 3:23 이하) 성립될 수 없다..우선 그(바울)는 사람에게 아무런 의도, 즉 아무 성실이나 순결이 없다고 하였고, 다음에 총명이 없다고 하였다(롬 3:10-11)..바울은 침부하기를, 모든 사람이 떨어져 나가 부패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끝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단언한다. 만일 이런 점들이 인류의 유전적인 천품이라면 우리의 본성에서 어떤 선한 것을 찾는 것은 무익한 행위이다.”(Institutes 2.3.2)

위 내용을 보면 칼뱅은 바울서신, 특히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토대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칼뱅의 인간론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 2. 양심

다른 한편으로 칼뱅은 자연법의 원천을 ‘양심’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자연법의 원천을 ‘이성’에서 찾고 있는 아퀴나스와 차이가 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칼뱅의 진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은 본성이 사회적 동물이므로,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사회생활을 육성하며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 생활상의 공정성과 질서에 대하여 보편적인 생각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단체생활은 모두 법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법의 원칙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관해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개인이 한결같이 합의하게 된다. 교사와 입법자가 없어도, 법의 씨앗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Institutes 2.2.13)

위와 같은 칼뱅의 진술에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지적되고 있다. 첫째, 자연법이 ‘자연스럽게’(naturally)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사회성이라는 우연한 사실로부터 자연법의 내용을 추론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칼뱅에 의하면 인간이 사회적이어서 자연법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법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사회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자연법은 인간의 마음(mind)속에 있는 질서라기보다는, 타락하기는 했지만 인간본성의 일부라는 것이다. 자연법은 이성의 능력에 의해서 명확해지기는 하지만, 인간의 이성이 신성에 참여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Pryor, 2006/2007: 248-249)

칼뱅이 양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반은총(common grace)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칼뱅의 서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 입법가들이 사회질서와 규율을 아주 공정하게 수립한 데 대하여 우리는 그들 위에 진리가 비쳤다는 것을 부정할 것인가?...우리는 깊은 존경심을 가지지 않고는 이런 문제들에 관한 고대인들의 저술을 읽을 수 없는데, 그들의 탁월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탄하는 것이다...우리는 인간성이 그 진정한 선을 빼앗긴 후에도 주께서는 많은 선물을 인간성에 남겨두셨다는 것을 그들의 예를 보아서 깨달아야 한다.”(Institutes 2.2.15)

위의 서술내용을 보면 칼뱅이 로마법학자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이 그의 자연법사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칼뱅의 일반은총론이나 형평의 개념은 그가 로마법의 대가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1</sup>

### 3. 인간의 죄성과 양심간의 조화가능성

칼뱅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 또는 ‘죄성’을 강조한 것과 사람의 마음에 심어진 ‘양심’을 강조한 것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헤셀링크는 신학자로서의 칼뱅과 인문주의자로서의 칼뱅의 모습이 조화되지 않은 채로 공존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이 두 가지 사이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칼뱅이 세속영역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낙관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획득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칼뱅이 자연법을 긍정하는 것은 인간의 본래적인 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Hesselink, 1992: 17) 칼뱅이 양심을 강조한 것은 어디까지 세속나라의 질서와 관련된 것이지 하나님나라의 구원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칼뱅의 자연법사상에 대한 대립되는 두 가지 입장을 소개한 바 있다. 이러한 대립되는 입장을 극복하고 제3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반드루넨의 두왕국론(two kingdom doctrine)을 들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칼뱅은 하나님의 왕국과의 세상의 왕국을 구분했고 양자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칼뱅이 자연법의 긍정적인 기

11) 칼뱅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1528년 오를레앙(Orleans) 대학에 가서 당시 로마법의 대가였던 레스투알(Pierre de l'Estoile: 1480-1537)로부터 배웠다. 이곳에서 칼뱅은 로마법(시민법)과 교회법을 공부하였고, 인문주의도 접하게 되었다. 칼뱅은 1529년에는 유명한 이탈리아출신의 법학자인 알찌아띠(Andrea Alciati: 1492-1550)를 따라 부르주(Bourges) 대학으로 옮겨서 법학공부를 이어갔고 1531년에는 법률가 자격도 취득했다.(이양호, 1997: 15-17)

능을 언급할 때에는 세상의 왕국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그러한 것이고, 칼뱅이 자연법의 부정적인 기능(인간을 정죄하는 기능)을 언급할 때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VanDrunen, 2004: 504)

이러한 반드루넨의 견해는 자연법의 적용영역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세상의 왕국 안에서의 인간의 죄성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볼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칼뱅은 세속정부의 형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철학자들이 논하는 정부의 세 형태에 대해서 그 자체만을 생각한다면, 나는 귀족 정치가 또는 귀족 정치와 민주 정치를 결합한 제도가 다른 형태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 귀족 정치 자체가 가장 좋다고 보다는, 항상 공정하며 바른 생각만을 하는 자제력이 강한 왕은 아주 드물기 때문이다. 뛰어난 총명과 지혜로써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아는 임금도 드물다. 그러므로 사람의 결함이나 실패 때문에, 여러 사람이 정권을 운영하는 편이 더욱 안전하고 보다 견딜 만하다… 또 나는 자유를 적절한 절제로써 조절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바르게 확립하는 정치 제도가 가장 좋다고 인정하며, 이러한 형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집권자들은 전력을 다하여 어떤 의미에서든지 자유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침범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Institutes 4.20.8)

칼뱅이 세속정부에서 왕정보다는 귀족정 또는 민주정을 지지한 이유는 ‘인간의 죄성’이 왕정에서 보다 쉽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칼뱅은 세속정부에서의 법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자연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죄성을 고려한 진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볼 때에는 칼뱅의 인간의 죄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위 칼뱅의 진술내용을 보면 자유를 보호해야 할 집권자들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유(권리)를 중시하는 칼뱅은 사상은 향후 헌정주의의 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Hamilton, 2001; Witte, 2007) 그리고 칼뱅은 십계명의 제5계명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단지 부모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상하의 관계에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Institutes 2.8.35)<sup>12</sup> 그러나 이러한 세속정부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Institutes 4.20.32) 이러한 칼뱅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보면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세속정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Bohatec, 1934: 84)

이러한 칼뱅의 견해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절대적 자연법’과 ‘상대적 자연법’의 구별이

12) 보하텍은 칼뱅이 제5계명이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질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본다.(Bohatec, 1934: 15)

다. 보하텍은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평등’을 강조하는 ‘절대적 자연법’(absolutes Naturrecht)사상이 아닌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상대적 자연법’(relatives Naturrecht)사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Bohatec, 1934: 92) 브루너는 이러한 ‘절대적 자연법’ 개념과 ‘상대적 자연법’ 개념의 구분은 트뢰치(Troeltsch)가 도입하였고, 보하텍도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sup>13</sup> 그러면서 브루너는 기독교적 자연법이 절대적 자연법 요소와 상대적 자연법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구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브루너, 2003: 139)

보하텍이 칼뱅이 ‘세속정부의 권위를 강조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적 자연법 개념을 사용한 것은 칼뱅의 자연법사상의 한쪽 측면만을 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칼뱅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은 국가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칼뱅은 권리(자유)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칼뱅의 사상은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세속정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자연법’사상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처럼 재구성된 ‘상대적 자연법’ 개념은 인간의 죄성과 양심을 모두 강조하는 칼뱅신학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용어로 보아야 한다.<sup>14</sup>

## IV.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의 비교

### 1.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

아퀴나스는 신학대전 1권 2장 90번 질문부터 108번 질문사이에서 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퀴나스는 1) 영구법(*lex aeterna*), 2) 자연법(*lex naturalis*), 3) 인정법(*lex humana*), 4) 신법(*lex divina*)을 구분하고 있다. 그는 우선 법이란 완벽한 공동체를 지배하는 통치자로부터 나오는 실천이성의 기술에 다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주를 통치하는 신적인 이성의 영원성을 근거로 영구법의 존재를 긍정한다. 다음으로 로마서 2:14를 근거로 하여 인간은 정당한 행위에 대한 자연적인 경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인간은 영구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면서 이를 자연법으로 이해한다. 이어서 인간의 이성은 특정의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법으로 부르고 있다. 또한 자연법과 인정법 이외에도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법으로 신법이 존재한다고 이해한다.(*Summa I-II, Q.91 Article 1-4*)

아퀴나스는 자연법과 인정법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는 자연법으로부터 벗어난 인정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며 법의 왜곡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자연법으로부터 인정법이 도출되

13) 트뢰치는 신적인 질서를 반영한 ‘절대적 자연법’이, 타락한 인간성 안에서 국가와 사회질서라는 ‘상대적 자연법’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고 있다.(Troeltsch 1992: 343)

14) 이처럼 재구성된 ‘상대적 자연법’ 개념은 보하텍이나 트뢰치가 사용한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본다. 1) 결론(conclusio)과 2) 결정(determinatio)이 그것인데, 1)은 전제로부터 연역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서 자연법이 자연스럽게 인정법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말하며, 2)는 계획을 구체화하여 실행을 하는 방식으로서 자연법이 각 국가의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인정법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말한다. 1)의 예로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자연법상의 규칙이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인정법상의 규칙으로 연결되는 것을 들고 있고, 2)의 예로는 인정법에서 살인죄에 대해서 어떠한 형벌을 가할 것인지의 문제를 들고 있다.(Summa I-II, Q.95 Article 2; 송시섭, 2021: 658-662)

## 2. 아퀴나스와 칼뱅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러한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과 칼뱅의 자연법사상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맥닐은 칼뱅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자연법사상과 아퀴나스와 같은 중세의 자연법사상가들 사이에 뚜렷한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연법사상은 종교개혁자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이슈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법사상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치사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고 본다.(McNeill, 1946: 168)

반드루넨도 양자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1) 칼뱅이 인정법의 정의의 근거를 자연법에 두면서 로마서 2:14를 들고 있는 점, 2) 칼뱅이 인간 입법자들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가지고 유연한 방식으로 인정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점,<sup>15</sup> 3) 칼뱅이 구약의 율법을 도덕법, 제사법, 재판법 등으로 구분한 점<sup>16</sup> 등을 그 근거로 한다.(반드루넨, 2018: 173-175)<sup>17</sup>

칼뱅의 자연법사상에는 아퀴나스와 연속성이 있는 측면이 확실히 존재한다. 그러나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 사이에는 다양한 불연속성 또한 지적되고 있다.<sup>18</sup> 첫째, 법을 실정화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아퀴나스는 인간 타락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법을 독립적인 법의 근원으로 보았으나, 칼뱅은 자연법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시에 새겨 준 것이었으나 인간의 타락의 영향으로 그 자체로서는 알 수 없고 타락으로 인하여 희미해진 것을 하나님이 성문법인 십계명을 통하여 명백하게 하여준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이은선, 1993: 22-23; Pryor 2006/2007: 250)

이처럼 ‘성문법’으로서의 십계명을 강조한 것은 칼뱅을 자연법주의자로만 볼 수 없게 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칼뱅이 인간타락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과 매우 긴밀한 연결성이 있다고 할

15) 이 부분은 아퀴나스가 말한 ‘결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6) 아퀴나스도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Summa I-II, Q.99 Art.4),

17) 자연법사상은 개신교와 가톨릭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유지황, 2015: 142; 송시섭 2019: 443), 이는 칼뱅과 아퀴나스 자연법사상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견해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헤셀링크는 맥닐의 견해를 지지하는 견해는 소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Hesselink 1992: 68),

수 있다. 아퀴나스도 자연법의 원리들을 인정법으로 실정화하는 것을 강조하기는 하였지만 인간의 이성<sup>19</sup>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법의 실정화 필요정도에 있어서는 칼뱅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자연법의 원천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칼뱅은 자연법의 원천을 하나님의 인간에 심어놓은 ‘양심’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이를 인간의 ‘이성’에서 찾은 아퀴나스와 차이점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VanDrunen, 2004: 512; Backus, 2003: 12)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칼뱅이 말하는 ‘양심’은 ‘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칼뱅이 말한 양심은 자연법 자체가 아니라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양심과 이성은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는 것이다.(Klempa, 1990: 11)

그러나 칼뱅이 자연법의 원천을 양심에서 찾은 것은 아퀴나스의 자연법이론과 많은 차이를 갖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아퀴나스가 ‘양지(良知)’(synderesis)와 ‘양심’(conscientia)을 구분하고 양지가 실천이성의 제일원리를 인식할 수 있는 자연적인 속성으로서 무오류성의 특징을 갖는다고 보아 인간의 자율성을 매우 강조했는데(Herdt, 2014: 422; 임경현, 2017: 11), 이는 인간타락을 강조하면서 신중하게 양심을 자연법의 원천으로 이해한 칼뱅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신법(또는 영구법)과 자연법의 관계이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인간이 영원법에 ‘참여’(participatio)<sup>19</sup>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칼뱅은 이렇게 보고 있지 않다.(Lee 2014: 174) 칼뱅이 일반은총(common grace)을 언급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인간이 신법을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정화된 십계명으로 자연법을 주셨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신법(또는 영구법)과 자연법간 관계에 대한 차이 역시 칼뱅과 아퀴나스의 서로 다른 인간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자연법과 인정법간의 관계이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에서 인정법을 도출하는 두 가지 방식, 즉 ‘결론’과 ‘결정’의 구별에 대해서 논했지만 칼뱅에게서는 이러한 구분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Bohatec, 1934: 101) 배커스는 칼뱅은 ‘양심’의 개념을 토대로 자연법과 인정법간의 본질적인 연계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아퀴나스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Backus, 2003: 12-13)

칼뱅이 ‘결론’과 ‘결정’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연법의 핵심인 형평의 사상이 각국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점에서 아퀴나스의 ‘결정’과 유사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칼뱅이 ‘양심’을 토대로 자연법과 실정법의 본질적

19) 이진남 교수는 신학대전의 번역본에서 ‘참여’대신에 ‘분유’(分有) 또는 ‘분여’(分興)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아퀴나스, 2021: 8-9)

인 연계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아퀴나스에 비해 통합적인 이론을 펼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20</sup>

## V. 칼뱅의 자연법사상이 세속법질서에 주는 함의

### 1. 이론적인 함의

#### (1) 칼뱅 자연법사상의 핵심개념: 형평

칼뱅은 자연법의 핵심개념으로 ‘형평’의 개념을 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십계명에 반영된 자연법 원리의 핵심은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형평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고 보고 있다. 칼뱅은 이러한 형평의 개념을 토대로 세속법(인정법)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세속법질서에서는 형평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19세기까지도 보통법원(court of law)과 형평법원(court of equity)을 구별하고 보통법원에서의 엄격한 법적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형평법원에서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공법질서에서도 형평의 원리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또는 비례원칙), 손실 보상분야에 적용되는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의 원리 등이 모두 형평의 원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과 같은 사법질서에서도 공평(형평)의 원리는 계약당사자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법리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속법질서에서의 형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칼뱅에 의하면 이러한 형평은 십계명에서 나타난 ‘사랑’계명의 실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게 된다. 이러한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오늘날의 세속법질서로 확장시켜서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형평’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

#### (2) 칼뱅의 인간론과 자연법사상: 인간의 죄성과 양심의 균형

칼뱅의 자연법사상이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과 대조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토대로 구축된 사상이라는 점이다. 바르트를 비롯한 현대 개신교신학자들은 자연법사상을 인간의 죄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보아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데,<sup>21</sup> 칼뱅의 사상은 ‘인

20) 아퀴나스와 칼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는 반드루넨은 이와 같은 베커스의 견해가 칼뱅의 주장을 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반드루넨 2018: 174) 그러나 아퀴나스와 칼뱅의 자연법사상에서 양심이 갖는 서로 다른 지위를 고려하면 베커스의 주장은 지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 자연법사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현대신학자로 바르트(Karl Barth), 벨카우어(Gerrit Cornelis Berkouwer),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반틸(Cornelius Van Til) 등을 들 수 있다.(Grabill 2004: 302)



간의 죄성'에 대한 강조와 자연법의 원천이 되는 '양심'에 대한 강조가 공존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세속법에서도 인간의 죄성, 즉 이기적 속성을 반영한 법리들이 만들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헌정주의에서 강조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리 기본권의 존중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칼뱅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입법학 분야에서는 법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는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오히려 규범과 현실간의 괴리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인간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보지 않고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을 가진다. 칼뱅이 법의 세 가지 기능을 설명하면서 외형적 죄의 억제라고 하는 정치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간론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칼뱅은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도 자연법의 원천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세속법질서에 적용해보면 비교법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외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법제도나 법실무가 존재한다면 이는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양심에 기초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3)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의 비교: 자연법사상과 법실증주의의 종합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자연법사상과 법실증주의의 대결의 역사로 발전되어 온 법철학사에 있어서 양자가 화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칼뱅은 자연법 개념을 강조하면서도 눈에 보일 수 있게 '실정화'된 십계명에서 자연법원리를 찾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십계명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법을 온전히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연법사상과 법실증주의가 종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을 소화하면서도 이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칼뱅의 사상을 좀 더 발전시켜 보면 바람직한 질서를 실정법으로 규율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가능한 귀족정이나 민주정을 왕정에 비해서 칼뱅이 선호했던 점은 세속법의 실정화를 강조하는 이론으로 연결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은 '법실증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세속정부의 한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점, 시민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은 오늘날 '자연법사상'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세속법질서를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사상 어느 한 쪽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칼뱅의 종합적인 관점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세속법질서에서는 법률의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에 대해서 헌법에 의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사상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2</sup> 칼뱅의 종합적 관점은 현행 세속법질서와도 조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실제적인 함의: 집합금지명령과 예배

### (1) 현황

칼뱅의 자연법사상이 세속법질서에 주는 실제적인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서 코로나19시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과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2호). 그리고 동조 제3항에서는 시·도지사 등은 방역지침의 준수명령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해서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1월에 집합금지명령 상황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한 부산의 모교회에 대해서 부산시장이 폐쇄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교회측에서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다. 2021년 2월에는 집합금지명령 또는 집합제한명령이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은 2021년 6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권과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헌법적인 이슈가 핵심이 되고 있다. 이에 관한 헌법학계의 최근 연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병 전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된다면, 이러한 전파가능성을 낮추려는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하면서도, 예배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예외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정문식·정호경, 2020: 94)

이러한 상황들을 칼뱅의 자연법사상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볼 수 있을지 이어서 검토해보도록 한다.

22) 김현철, 2017은 실정법에 대한 평가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오늘날 자연법사상이 갖는 중요한 의미로 보고 있다. 이 때의 평가라고 할 때는 위헌법률심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평가를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칼뱅의 자연법사상도 이러한 실정법에 대한 평가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칼뱅의 자연법사상의 관점에서의 분석

첫째, 집합금지명령과 예배의 관계를 볼 때에는 자연법의 핵심개념인 ‘형평’의 개념에 충실한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평의 개념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웃사랑의 정신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웃사랑’은 ‘하나님사랑’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십계명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칼뱅이 세속정부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사회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빵과 물과 태양과 공기가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이런 것들이 하는 일 즉 사람들이 호흡하고 먹고 마시며 따뜻하게 하는 이런 모든 활동을 포함한 생활방도를 마련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한다. 우상숭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훼방 그리고 그 밖에 종교에 대한 공공연한 방해가 사회에 발생하거나 만연하지 않도록 하고, 치안을 유지하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간 상호간에 선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며 정직과 겸양의 덕을 보존한다. 요컨대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에 인간성이 보존되도록 한다.”(Institutes 4.20.3)

위 내용을 보면 칼뱅은 세속정부가 이웃사랑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사랑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집합금지명령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사랑’의 개념과 연결된다. 1)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공동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하나이고, 2) 신자들의 예배의 자유를 존중하는 측면이 다른 하나이다. 1)이 이웃사랑과 연결되고, 2)는 하나님사랑과 연결된다.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집합금지명령이 형평의 개념에 충실한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 1)과 2)는 모순충돌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칼뱅은 각국의 법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리가 반영되는 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칼뱅의 논리는 다른 국가의 법과 우리나라의 법을 비교분석하는 비교법의 중요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이 헌법질서의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정문식·정호경, 2020: 106-107).<sup>23</sup> 이처럼 헌법질서, 특히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23) 독일의 작센주 법규명령에 의한 5월 1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예배금지 제한조치가 이슬람교 신자의 예배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가명명신청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예배행위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같은 행동이 장시간 유지되기 때문에, 대형상점에서 각기 다른 물건을 구매하려는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구매행위보다 위험성이 높아서 공연이나 운동경기에서 관중의 관람금지처럼 금지될 수 있음을 인정할 바 있다. 그러나 라마단 같은 중요한 종교행사 기간에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심각성(정도)이 증대됨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당시 위험상황과 대우 행위에 대한 대응전략을 고려하여’ 예외 없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쉽게 인정되기 어렵고, 관할 행정청이 감염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BVerfG, Beschl. d. 2. Kammer d. Ersten Senats v. 29.04.2020 - 1 BvQ 44/20)

이라는 법리하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우리나라와 독일간에 비교법적으로 공통 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세속법질서에서의 논의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향후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전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하에 예배를 허용하는 방안이 원칙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칼뱅이 말하는 형평의 개념에 충실한 법집행, 즉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세속법질서가 될 것이다. 집합금지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간의 죄성과 양심이라는 인간의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인간의 죄성의 측면을 보면 교회내의 교인들에게도 인간의 죄성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는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세우는 것은 칼뱅의 자연법사상에 의하더라도 정당화되기 힘들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칼뱅은 죄성을 억제하는 세속법 및 집권자의 권위를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집행을 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에게도 권력을 남용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집합제한명령으로 충분한 데에도 정치적인 동기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칼뱅은 인간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을 남용하고 이로 인해 예배의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될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복종이 필요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의 집행 과정에서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교회가 두 가지(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순응과 불복종)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부분은 결국 형평의 원리, 다시 말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자연법(도덕법)의 원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자연법의 원천이 되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균형있는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사상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법실증주의의 측면에서 보면 집합금지명령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제정한 실정법인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방역을 고려하지 않은 자유로운 행위가 교회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사회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법사상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집합금지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이 남용될 경우에는 이는 예배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항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세속법질서에 헌법재판제도와 행정소송제도, 즉 소송제

도가 존재하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칼뱅은 그리스도인이 소송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소송을 하는 것이 경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서 칼뱅은 반대하고 있다. 바울이 집권자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사자로 본 것(롬 13:4)은 그리스도인이 집권자들의 도움을 받아, 즉 소송제도를 활용하여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송을 남발해서는 안 되면 이를 바르게 이용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본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해하겠다는 무모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Institutes 4.20.17, 4.20.18)

칼뱅의 소송에 대한 이러한 입장을 반영해서 보면 헌법재판제도와 행정소송제도를 활용하여 종교의 자유(예배의 자유)의 정당한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의 안전과의 관계에서 비례 원칙(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결정이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감염병예방법을 준수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 VI. 결론

이상에서 칼뱅의 자연법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칼뱅은 아퀴나스와 달리 인간의 양심에서부터 자연법의 원천을 찾았고 이러한 자연법은 실정화된 십계명에 핵심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연법사상의 핵심을 ‘형평’으로 이해하고 이는 십계명의 정신인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또한 칼뱅은 인간의 죄성을 철저히 강조하면서 자연법사상을 구축하였는데, 그 결과 칼뱅은 ‘자유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세속정부도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이해했다. 이러한 점에서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상대적 자연법사상’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오늘날 세속법질서에도 여러 가지 함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현대의 세속법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형평의 법원리의 근본에는 이웃사랑의 계명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칼뱅이 인간의 죄성과 양심을 균형있게 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셋째, 오늘날 법철학계에서 논의하는 자연법사상과 법실증주의의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실마리를 칼뱅이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놓고 많은 논쟁이 발생한 바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칼뱅의 자연법사상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칼뱅의 자연법사상이 칼뱅의 제네바 시기에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루터와 칼뱅의 자연법사상간에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칼뱅의 자연법사상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의 점도 주요한 연구과제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추후의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강상진 (2014). 토마스 아퀴나스의 실천이성과 자연법. *법철학연구*, 17(1), 85-108.
- [Kang, S. J. (2014).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17(1), 85-108]
- 권호덕 (2003). **율법의 세가지 용도와 그 사회적 적용: 영미형법의 세 가지 뼈대**. 서울: 그리심.
- [Kwon, H. D. (2003). *Three Uses of Law and it's Social Application: Three Fundamentals in Anglo-American Criminal Law*. Seoul: Grisim]
- 김대인 (2009). 마르틴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고찰 - 두 왕국론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4(2), 49-79.
- [Kim, D. I. (2009). A Study on Martin Luther's Legal Thought - Focusing on "Two Kingdom Theory". *Faith & Scholarship*, 14(2), 49-79]
- 김두식 (2007). **평화의 얼굴**. 서울: 교양인.
- [Kim, D. S. (2007). *The Face of Peace*. Seoul: Kyoyangin]
- 김상용 (2012). 서양에서의 자연법론의 생성, 발전 및 영향에 관한 연구 - 고대에서부터 근세까지.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51(1). 139-216.
- [Kim, S. Y. (2012). The Rise, Development and Effect of Natural Law Theory in Western Countries - From Ancient to Modern Period. *National Academy of Science Journal (Humanities & Social Sciences)*, 51(1), 139-216]
- 김재성 (2004). 율법과 복음: 칼빈의 “제3용법”과 해석원리. *신학정론*, 22(1), 151-181.
- [Kim, J. S. (2004). Law and Gospel: Calvin's Third Use of Law and its Interpretation Principle. *Hapshin Theological Journal*, 22(1), 151-181]
- 김정우 (2010). 기독교가 서구법의 발전에 끼친 영향에 관한 소고 - 고전후기 시대의 로마법에서 중세 캐논 법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송실대), 24, 19-45.
- [Kim, J. W. (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hristianity on the Development of Western Legal traditio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centuries between the Roman law of the postclassical period and the canon Law of the middle ages. *Soongsil Law Review*, 24, 19-45]
- 김철 (2010). 칼뱅주의와 법에 대한 사상사: 로저 윌리엄스의 교회와 국가에 대한 분리주의 원칙. 한국인문 사회과학회 엮음, **칼뱅주의 논쟁**. (pp. 71-99). 서울: 북코리아.
- [Kim, C. (2010). Calvinism and History of Legal Thought: Roger Williams' Principle of Separation between Church & State. Korea Associ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d.), *Discussion on Calvinism*, Seoul: Book Korea]
- 김철영 (1999). 칼빈의 율법관에 드러난 자연법 이해. **장신논단**, 15, 354-372.

- [Kim, C. Y. (1999). Calvin's Understanding of Natural Law in his Perspective on Law.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15, 354-372]
- 김현철 (2017). 자연주의적 자연법 이론의 가능성. *법철학연구*, 20(1), 35-62.
- [Kim, H. C. (2017). The Possibility of the Naturalistic Natural Law Theory.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20(1), 35-62]
- 김희권 (2008). 구약성경의 율법들 - 계약법전(출 20:22-23:33), 성결법전(레 17-26장), 그리고 신명기법전(신 12-26장)의 원천: 십계명. *법학논총(숭실대학교)*, 19, 29-63.
- [Kim, H. K. The Origins of Old Testament Laws - the Book of Covenant (Exod 20:22-23:33), the Holiness Code(Lev 16-26), and the Deuteronomic Law(Deut 12-26): The Decalogue. *Soongsil Law Review*, 19, 29-63]
- 문병호 (2005). 칼빈 율법관의 법학적 기원. *법사학연구*, 31, 315-353.
- [Moon, B. H. (2005). The Legal Origin of Calvin's Theology of the Divine Law. *Korean Journal of Legal History*, 31, 315-353]
- 박은정 (2017). 전환시대의 법철학 - 자연법론의 귀환(?). *법철학연구*, 20(1), 7-34.
- [Pak, U. J. Legal Philosophy in Transition - A Return of Natural Law Theor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20(1), 7-34.
- 송시섭 (2019). 개신교 자연법 사상의 가능성에 관한 시론. *서울법학*, 26(4), 415-449.
- [Song, S. S. A Study on Possibility of Protestant Natural Law Theory. *Seoul Law Review*, 26(4), 415-449]
- 송시섭 (2021).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으로부터의 인정법 도출방법으로서의 '결론'(conclusion)과 '결정'(determination)", *일감법학*, 48, 649-672.
- [Song, S. S. (2021). Thomas Aquinas's Natural Law and Human Law - Focused on 'Conclusion' and 'Determination' of Derivation Methods, *Ilkam Law Review*, 48, 649-672]
- 송용원 (2017). **칼뱅과 공동선**. 서울: IVP.
- [Song, Y. W (2017). *Calvin and Common Good*, Seoul: IVP]
- 신치재 (2011). 존 칼빈의 개혁신학에 나타난 법 이해. *중앙법학*, 13(4), 555-583.
- [Shin, C. J. John Calvin's Comprehension of Law appeared in the Reformed Theology. *Chung-Ang Law Review*, 13(4), 555-583]
- 양명수 (2020). **아무도 내게 명령할 수 없다: 마르틴 루터의 정치사상과 근대**.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Yang, M. S. (2020). No One can Command Me: Martin Luther's Political Thought and Modern Era.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오민용 (2018). **존 피니스의 법사상 연구: 혼인과 성의 형이상학과 동성혼 금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



학박사학위논문.

- [Oh, M. Y. (2018). *A Study of Legal Thought of John Finnis: The Metaphysics of Marriage and Prohibition of Same-Sex Marriag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Law,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우병훈 (2019). **기독교윤리학**. 서울: 복있는 사람.
- [Woo, B. H. (2019). *Christian Ethics*. Seoul: The Blessed]
- 원성현 (2002). **칼빈의 형평론**.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석사학위논문.
- [Won, S. H. (2002). *Calvin's Theory on Equity*. Master Degree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Theology, Yonsei University]
- 유지황 (2015).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에 대한 역사적 재해석: 마틴 루터와 일부 개신교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0(2), 121-148.
- [Lew, J. H. (2015) Historical Reinterpretation of Thomas Aquinas' Natural Law; Centered on the Views of Martin Luther and Some Protestant Theologians on Natural Law. *Faith & Scholarship*, 20(2), 121-148.
- 이국운 (2006). 프로테스탄티즘과 입헌주의. **신앙과 학문**, 11(2), 135-168.
- [Lee, K. W. (2006). Protestantism and Constitutionalism. *Faith & Scholarship*, 11(2), 135-168]
- 이양호 (1997).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Lee, Y. H. *The Life and Idea of Calvin*. Seoul: Korean Theological Research Institute.
- 이은선 (1993). 칼빈의 자연법 사상 연구. **대신대학 논문집**, 13, 213-237.
- [Lee, E. S. (1993). Calvin's Natural Law Thought. *Dae-Shin University Journal*, 13, 213-237]
- 이은선 (1997). **칼빈의 신학적 정치 윤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Lee, E. S. (1993). *Study on the Theological Political Ethic of John Calvin*. Seoul: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 이진남 (2010). 자연법과 생명윤리: 토마스주의 자연법윤리의 체계와 원리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57, 163-188.
- [Yi, J. N. (2010). Natural law and Bioethics: Focused on the Systems and Principles of Thomistic Natural Law Ethics. *Journal of Pan-Korean Philosophy*, 57, 163-188]
- 임경현 (2017).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 신데레시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몇 가지 문제들 -. **중세철학**, 23, 5-45.
- [Im, K. H. (2017). Naturgesetz bei Thomas von Aquin: Synderesis, Aristoteles, und einige Problem, *Journal of Middle Age Philosophy*, 23, 5-45.
- 임영동 (2019). 기독교 자연신학의 가능성과 현실성- 칼빈의 자연이해를 중심으로 -, **조직신학연구**, 32,

160-198.

[Lim, Y. D. (2019). The Possibilities and Realities of Christian Natural Theology - Focusing on Calvin's Understanding of Nature.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32, 160-198.

정문식·정호경 (2020). 코로나위기와 헌법국가 -독일에서의 코로나위기 대응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7(2), 77-116.

[Jeong, M. S. & Jung H. K. (2020). Corona Crisis and Constitutional State - Constitutional Discourse over the Corona-Measures in Germany -, *Journal of Constitutional Justice*, 7(2), 77-106.

지승원 (1990). **법에 있어서의 인간 - E. Wolf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Ji, S. W. (1990). *Human in the Context of Law - Focusing on Erik Wolf*.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Law,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진용희 (1993). **현대 개신교법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Jin, W. H. (1993). *A Study on Protestant Legal Thought*.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한철 (2008). **로마와 예루살렘 대화**. 서울: 글누리.

[Han, C. *Conversation between Rome and Jerusalem*. Seoul: Guelnuri]

홍기원 (2007). 초기 칼비니즘의 정치사상 연구서설 - 신법과 인법, 그리고 최선의 정부형태. *법사학연구*, 36, 277-304.

[Hong, K. W. (2007) Introduction to the Political Thought of the Sixteenth-Century Calvinism: Divine Law, Human Law, and the Best Form of Government. *Korean Journal of Legal History*. 36. 277-304.

## 2. 외국문헌

Aquinas, T. (1265-1273). *The Summa Theologica*. Trans.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Veritatis Splendor Publications.

[아퀴나스, 이진남 역. (2020). **신학대전 28: 법**, 서울: 바오로딸]

Backus, I. (2003). Calvin's Concept of Natural and Roman Law, *Calvin Theological Journal*, 38, 7-26.

Bohatec, J. (1934). *Calvin und das Recht*. Feudingingen in Westfalen: Buchdruckerei u. Verlagsanstalt G.m.b.H.

Brunner, E. (2002). *Gerechtigkeit: Eine Lehre von den Grundsätzen Der Gesellschaftsordnung*.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브루너, 전택부 역 (2003). **정의와 사회질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Brunner, E. & Barth, K. (2002). *Natural Theology: Comprising Nature and Grace by Professor Dr. Emil Brunner and the reply No!*. Wipf & Stock Pub.
- [브루너·바르트, 김동건 역. (2021). **자연신학: 에밀 브루너의 자연과 은혜와 칼 바르트의 아니오!**, 대한기독교서회]
- Calvin, J. (1559).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by John T. McNeil, Trans. by Lewis Battles (2006).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칼뱅, 김종흡 외 역 (1991-1996). **기독교강요(상, 중, 하)**. 서울: 생명의 말씀사]
- DeBoer, M. J. (2008). John Calvin, the Civil Magistrate, Law and the Natural Law: Exploring Calvin's Understanding. *Liberty University Law Review*, 2(3), 649-684.
- Dooyeweerd, H. (2013). Calvinism and Natural Law. in: Strauss D.F.M. (ed.) (2013). *Essays in Leg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Series B, Volume 14, Paideia Press.
- Grabill, S. J. (2004). *Theological Foundations for a Reformed Doctrine of Natural Law*. Doctoral Dissertation, Calvin Theological Seminary.
- Haas, G. H. (1997). *The Concept of Equity in Calvin's Ethics*. Carlisle: Parternoster Press.
- Hamilton, M. A., (2001). The Calvinist Paradox of Distrust and Hope at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in McConnell, M. W. et al, (ed.) (2001). *Christian Perspectives on Legal Though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1.
- [해밀턴, 이일 역 (2015). **그리스도와 법**. 서울: IVP]
- Herd, J. A. (2014). Calvin's Legacy for Contemporary Reformed Natural Law.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67(4), 414-435.
- Hesselink, I. J. (1992). *Calvin's Concept of Law*,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 Hopkins, P. D. (2005). Natural Law. in Borchert, D. M. (ed.) (2005). *Encyclopedia of Philosophy* (2nd Ed.). Farmington Hills: Thomson Gale.
- Klempa, W. (1990). Calvin and Natural Law. in: George T. (ed.) (1990). *John Calvin and the Church: A Prism of Reform*. Westminster/John Knox Press.
- Lee, C. Y. (2014). Calvinist Natural Law and the Ultimate Good, *The Western Australian Jurist*, 5, 153-175.
- McNeill, J. T. (1946). Natural Law in the Teaching of the Reformers, *The Journal of Religion*, 26(3), 71-91.
- Pryor, S. (2006/2007). John Calvin's Application of Natural Law. *Journal of Law and Religion*, 22(1), 225-254.
- Tuininga, M. J. (2016). 'Because of Your Hardness of Heart': Calvin and the Limites of Law.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69(3), 281-294.

Troeltsch, E. (1992). *The Social Teachings of the Christian Churches*. Trans. Oliver Wy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트렐치, 현영학 역 (2003). **기독교사회윤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VanDrunen, D. (2004). The Context of Natural Law: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Two Kingdoms. *Journal of Church and State*, 46(3), 503-525.

VanDrunen, D. (2010). *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s: A Study in the Development of Reformed Social Thought*. Grand Rapids: Eerdmans.

[반드루넨, 김남국 역 (2018). **자연법과 두 나라**. 서울: 부흥과 개혁사]

Witte, J. (2007). *The Reformation of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위티, 정두메 역 (2015). **권리와 자유의 역사**. 서울: IVP]

#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그 세속법적 함의\*

## Calvin's Natural Law Theory and Its Implications for Human Law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 논문초록

코로나사태에 대응하여 교회에게 내려졌던 집합금지명령은 세속법(인정법)의 기능과 한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칼뱅의 자연법사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칼뱅은 아퀴나스와 달리 인간의 양심에서부터 자연법의 원천을 찾았고 이러한 자연법은 실정화된 십계명에 핵심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연법사상의 핵심을 ‘형평’으로 이해하고 이는 십계명의 정신인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또한 칼뱅은 인간의 죄성을 철저히 강조하면서 자연법사상을 구축하였는데, 그 결과 칼뱅은 ‘자유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세속정부도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이해했다. 이러한 점에서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상대적 자연법사상’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오늘날 세속법질서에도 여러 가지 함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현대의 세속법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형평의 법원리의 근본에는 이웃사랑의 계명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칼뱅의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세속법을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으로 보는 것의 한계를 드러내준다. 셋째, 오늘날 법철학계에서 논의하는 자연법사상과 법실증주의의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토대로 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교회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죄성을 균형있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가 궁극적으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칼뱅, 아퀴나스, 신법, 자연법, 세속법(인정법), 형평, 집합금지명령